

제42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7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 현안질의 5

(15시44분 개의)

○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의결이 끝난 다음에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소위원회, 오늘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와 과방위 예산소위는 22대 국회 들어서 몇 가지 긍정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작년 정기국회에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GPU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 정기국회 과방위에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1조 원의 증액을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12·3 계엄 사태로 증액이 무산됨으로써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으로 이어져서 지난 최상목 부총리의 추경 13조 제출 때 1조 4600억의 GPU 구입 예산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방위가 이룩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페지컬AI와 관련해서 과방위 예산소위와 과방위가 이것을 증액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기부가 당초 페지컬AI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예산으로, 그 본질을 왜곡하고 방향을 왜곡해서 500억 중기 지원사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과기부 원안대로 소위에서 심의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페지컬AI는 미국도 강자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올 초에 얘기했듯이 AI의 미래는 페지컬AI에 달려 있고, 사실상 중국과 한국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미 절강성을 페지컬AI 선도특구로 지정해서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61억 1800만 원을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억 순증,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순증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72억 순증으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증액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페지컬AI 기술개발 기술검증 지원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페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증 사업, 개인기초연구 사업,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페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증은 페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9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개인기초연구는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400억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은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기획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HBM입니다. 바로 HBM 기술로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은 방사광가속기 연구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서 포항 3세대 방사광가속기 라인 중·개설 비용 30억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AI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지원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140억 증액했습니다.

여섯째, 컴퓨팅자원집중형인공지능응용기술개발은 대학 등에 분산된 GPU 자원의 집적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5년도 참여 대학에 대한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7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억 5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서 올 9월부터 문자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방통위원장의 독임제 발언에 관한 사항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억 31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은 우주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4억 85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영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와 새 비목 설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증액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보좌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과방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스팸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잘 반영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경비는 저

희 위원회로서는 직원들의 실패줄과 마찬가지인 경비입니다. 아직도 출장을 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실패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 현안질의

(15시56분)

○위원장 최민희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늘 금요일이지요, 적당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어제 SKT 조사 결과 발표 6월 말까지 하신다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훈기 위원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일이니까 월요일 날, 6월 30일 날 발표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훈기 위원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그것도 발표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마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부터 하고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5개 로펌에 의뢰한 것 있잖아요. 그 5개 로펌에서 결과 다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처음에 의뢰했던 것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지 않고 의뢰했던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민관합동조사단에……

○이훈기 위원 처음에 여기 청문회 할 때 오셔 갖고 네 군데 주고 그다음 날 한 군데

더 줬다고 그랬어요. 다섯 군데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게 두 달 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없이 의뢰를 한……

○**이훈기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의뢰 그 후에 다시 또 의뢰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다시 의뢰해야 됩니다.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다섯 군데 줬던 결과는 나왔고 6월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거 의뢰해야지요. 그 결과가 있어야지 제대로 판단을……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달 전에 의뢰한 것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 그러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런데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훈기 위원** 그러면 두 달 전에 청문회 오셔 갖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훈기 위원** 그때 와 갖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다섯 군데 의뢰해서 그 결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의뢰한 건 소용이 없고 다시 또 의뢰해야 된다? 국회 와서 위원들하고 뭐 장난, 놀아요? 말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훈기 위원** 아니,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로펌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번호이동 위약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는 로펌 의뢰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두 달이 지났는데 그건 소용없고 다시 또 의뢰를 하겠다? 국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건 소용없다는 얘기 한 적 없고 그 법무법인에,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그분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 보시라고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속기록도 찾아볼 텐데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로펌에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의뢰를 했고 로펌 결과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고 그 옆에 있었던 SKT 유영상 사장은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검토 결과 위약금을 면제해도 된다고 나오면 면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약속을. 과기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말이 왜 안 됩니까? 아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훈기 위원** 아니, 두 달 전에 청문회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전혀 다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민관합동조사

단이 끝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훈기 위원 이용약관에 따른 귀책사유, 귀책사유를 로펌에서 판단을 해서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용약관 면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5개 로펌에 의뢰한 것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을 바꾸는 것 아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말을 바꾼 적 없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30일 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법인에 다시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훈기 위원 잠깐 계세요.

차관님,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률 의뢰를 하셨고 그 법률 의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게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도 그 로펌 결과에 따라서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 법률 검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문제들을 법률 의뢰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이 나온다, 판단할 수 있다는 의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약속을 국회에 드렸던 게 시점이 15일에서 20일 사이인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지금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 5개 로펌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어요, 로펌 결과. 왜 안 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난번에도 그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초기에 할 때 법무법인에서 이것은,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의견들을 듣기로 했던 부분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SKT 번호이동 SKT 해킹 사태 이후에 몇 분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몇 분이라는……

○이훈기 위원 번호이동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기본적으로 SK 건은 50만 그리고 SK향에 60만 쯤 됩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50만 명이 낸 위약금은 얼마예요? 번호이동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위약금을 낸 돈은, 50만 명이 얼마를 냈어요? 몰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숫자는 SK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사 결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청이나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불안해서 지금 번호이동을 50만 명 이상 한 것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위약금을 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것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법리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했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 상임위에서도 TF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30일까지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국회랑 상의도 드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위원님 관심이 있으신 위약금에 대한 문제들은 그 조사 결과의 추가적인 법리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두 달 전에 청문회를 두 번 했어요. 그때 얘기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로펌에 의뢰해서 결과 나오면 금방 반영해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그랬고 그걸 받아서, SKT 유영상 사장도 그 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위약금 면제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법무법인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의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기 장관한테 누가 안 되도록 저희 입장은 한 7월 4일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훈기 위원** 지금 SKT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다. 국가통신망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부 책임도 있다’. 과기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명확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의 책임은 당연히 관리 감독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은 있겠지요.

○**이훈기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전 국민의 절반이 관여돼 있어요. 가입자 2500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계에 비해서 통신비 지출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대표적인 민생 문제예요, 가계 문제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이 사건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 아니에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일을 그렇게 처리…… 지금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사건이 돼 버렸어요, SKT 사태 해결이. 과거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게 일 처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훈기 위원** 처리하는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두 달 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두 달 전하고 다르게 행동한 것 없습니다. 한번 방송 보세요.

○**이훈기 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뭘 발표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훈기 위원**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나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태료는 당연히 우리의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겠지요.

○**이훈기 위원** 과태료를 물게 되면 이용약관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이훈기 위원** 다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훈기 위원** 저번에 차관님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태료를 물리면 귀책사유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훈기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과태료 문제는 신고의 미비 문제나 시간의 지연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귀책사유 문제나 이런 것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지금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 국민이나 가입자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어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버렸잖아요. 빨리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차관으로서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 조사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시기 장관님 말씀 주셨지만, 상의를 한 번 더 드려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30일 날 조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날 완료 결과를 가지고 법리 해석에 부딪침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장관님 상의를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TF도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하나 발표 시기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법리 해석이나 내용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런 분…… 여기 상임위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청문회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월요일 날 조사 결과를 보고, 저번에 최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은 우리 과방위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의 모습은 그런 협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앞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상임위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진숙 위원님, 지금 최민희 위원장께서 방통위 폐지 법안 내겠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확하게 방통위 폐지 법안이라는 것이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정훈 위원 그런 취지의 법안을 내겠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방통위를 폐지하는 문제는 용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알고……

○박정훈 위원 혹시 폐지에 대해서 언질을 받거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런 것을 들은 적은 없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지금 이야기로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서 이전에 많이 지적하셨던 2인 체제에서 벗어나서 5인 완전체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정훈 위원 아직 용산에서 특별히 방통위를 폐지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단계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몇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회의였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 폐지 언급은 제가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산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 폐지를 하겠다는 게 최민희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용산하고 교감해서 하는 얘기인지 사실 저희들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2소위에서 방송3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논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오늘 소위에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처리가 안 됐던데 이 법에 대해서 기존의,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다가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가 돼서 이게 처리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과 기존의 안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지는 범인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13개 법안, 13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41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3법이기 때문에 KBS·MBC·방문진·EBS 다 합쳐서 40여 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0년도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안보다 아주 좋은 안이 나왔다면 그리고 여와 야 공수가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묵안이 나왔더라면 진작 그 안이 채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법안보다도 운용을 제대로 잘해야지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어쨌든 사실상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지금 국회하고 또 언론 관련 단체들에 나누어 주는 건데 저는 이것 용산에서 동의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용산에서 이 법을 과연 흔쾌히 오케이 할까, 혹시 상임위원장께서 간사하고 따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도 이것을 용산에서 홍보수석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용산의 입장하고 당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듣고 이게 공식적으로 백불을 한 게 아니라, 보도가 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던 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주요하게 다룰 이슈들이 이렇게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방송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우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의 업무에도 영향이 큰 부분들인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언론장악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고.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면, 제가 이전에 나온 법안들하고도 아까 그 공통점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또 자본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하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지난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영방송을 지금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안이 지금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위원장님, 간사분 그리고 관련 법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민노총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과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진흥·규제 아무것도 못 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지금 방통위원회의……

○위원장 최민희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관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스물다섯에 언론 바로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다 전문적 시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이사회가 독립,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사가?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 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무회의 배석조차 안 시켰던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6월 4일입니다. 5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시군요.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진숙 위원장님, 빵집·단란주점 범카 유용을 수사받고 있는 그 공직자 그리고 불법과 위법으로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한 방통위원장, 내란 수괴가 임명한 보수 여전사를 왜 국무회의 배석자로 앉혀 놓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우선……

○**황정아 위원** 질문 아닙니다.

술한 불법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으로 일단은 앉혀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반성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질문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상혁 위원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맞춰 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 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지요. 그 임기를 맞춰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황정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그냥 지나가면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왜 불법, 위법, 범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저의 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에게 불법, 위법, 범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 시간 10분은 황정아 위원님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용히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조용히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답변할 시간도 줘야지요, 답변하시라고.

○김현 위원 아니, 답변할 시간을 주지요. 그런데……

○위원장 최민희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아 위원님 질문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아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답변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제가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몇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실이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실이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 달라는 게 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 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떤 멋쟁이 바보를 앓혀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이 셋, 방송장악·언론탄압 트리오들의 13전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혐심을 KBS의 감사에 앓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선거가 무슨 정치적 쇼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부끄럽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향후에 선출직 출마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방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원장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실 용으로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선거 나가실 궁리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호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단란주점 등에서 범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낯부끄럽고 낯 뜨겁습니다. 마땅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유용은 별씨 세 번째 압수수색 아닙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답변을 안 해야 될 것은 답변을 하고.

도대체 언제 출석하실 작정입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자진 출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여태까지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기소되면 바로 자진 사퇴하시겠지요? 대답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황정아 위원** 질문을 골라서 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윤석열처럼 법꾸라지 전략으로 시간만 차일피일 끌 생각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불법과 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궤변과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보수 여전사는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문진 어떤 암박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좌파 진영의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우파 진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 하려면 이런 우파들이 필요하다’ 기억하시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진숙 위원장 손가락 운동하셨던 겁니다.

2023년 2월 8일에 본인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전입니다.

○**황정아 위원** 이진숙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보수 여전사를 키워 주려고 혈세로 녹봉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을 수족으로 만들어서 방탄 산성을 세워 주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권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까 이진숙 위원장님 추경 통과된 뒤에 말씀하실 때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증액된 거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불법스팸 관련해서 저희가 기계도 도입하고 또 자격인증을 하는……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전송자격인증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10개 기관과 재판매사 1161개에 대해서 자격인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까? 연속해서 제가 과기부나 KISA에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예산이 증액됐고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 전송자격인증제 거기에 5억 원, 전송자격인증 업무 처리 및 운영에 5억 5000만 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혼자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통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제가 국회 추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단통법 폐지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폐지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한민수 위원 단통법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7월 22일……

○한민수 위원 7월 22일이지요. 이게 관련해 가지고 고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앞서서 황정아 위원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이—보도가 됐으니까요, 여기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 저는 그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본인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지. 그거야 본인 뜻 아닙니까? 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한민수 위원 쭉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제 임기 동안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한민수 위원 성실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단통법이 왜 폐지되는지는 아시지요? 여야 모두 같이,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약속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연은 당했습니다만 당시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방통위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고시도 제대로 마련하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3명만 추천을 해 주시면 정상 가동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민주당입니다. 한민수 위원께 부탁드립니다. 3명 추천 될 수 있도록 꼭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지난해 7월 말일이지요, 그때가. 막 취임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7월 31일입니다.

○한민수 위원 31일이지요. KBS 이사하고 방문진 이사 막 선임했지요,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한민수 위원 그때 총 걸린 시간은 83명의 지원자를 지금 제 기억에 채 2시간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이진숙 위원장한테 노트북을 켜서 작동한, 운용한 흔적도 없는 사진을 보여 드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SNS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여야가 바뀌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더 꼼꼼하게 지적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께서 정치적 독립을 얘기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것 듣고는 사실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 날 2시간 만에 83명의 지원, 그게 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온갖 지적과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큰소리도 치고 지적도 했는데 저는 전임 정권의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이런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많았지요. 이진숙 위원장이 전에 근무했던 방송사를 상대로는 기자들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비행기 태우지도 않았어요, 전용기에. 그 아주 치졸한 방법도 쓰고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5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물리고. 그러면서 언론을 가혹할 정도로 탄압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생긴지 아시잖아요. 계엄 때는 단전·단수를 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수사,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슴없이 지시하고 실행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 제 역할을 했습니까? 제 역할이 아니고 아주 가혹할 정도로 방송장악의 첨병에 섰지요.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역할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지금은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지요,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는 그것을 아무리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서 본인 옹호를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입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 방통위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EBS 사장을 내리꽂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라져 버린, 저는 아마 그분 역시 사법 처리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인가요 이분은 청부민원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 사주. 결국은 계속 그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숨기고 숨기고 하다가 내부의 폭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수사가, 밝혀질 겁니다. 수사로 다 드러날 건데,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데, 망치는 데 일익을 한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아마 말씀은 못 해도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그렇게 혼란을 놓고 장시간, 저는 대변인으로서 당대표로 오래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잘 압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진숙 위원장도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못 했던 얘기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증오심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증오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없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 장관님도 계시고 하는데 질의를 할 때 다소 과하게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르면 지적도 합니다마는 그게 다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이나 국회나 모두 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 TV를 많이, 다들 보실 텐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전에 국회의장 한테도 그런 지적을 당하면……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회의장도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런 제언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질의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끼어들어서 또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면 목소리 커지고. 그 의도가 뭔지를 제가 예단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자주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중심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사실 오늘 현안질의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법스팸 관련된 예산은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던 거라 잘돼서 기쁜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것을 좀 물어보려다가, 동료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증오심에 꽉 차 있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민수 위원** 그만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 잘 들었는데 범법했다, 위법했다,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세요.

한민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한민수 위원** 시간 끝나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도 참석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압박했고 검찰, 온갖 권부를 동원해서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스킬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나섰고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하니까 기소를 빌미로 한상혁 위원장을 퇴출시켰습니다. 임기가 물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광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 정민영 위원 쫓아내기 위하여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추천했던 황모 위원의 경우 카드 문제라든지 근태 문제라든지 정연주 위원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음에도 황 모 위원 안 잘렸습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시켰습니다, 끝 끝내. 다 사퇴시켰습니다, 불공평하게. 이게 방송장악 아니면 뭐니까?

류희림이 청부민원 하게 된 계기, 저희는 청와대와 당시 윤석열…… 용산과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다 합작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센터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심의, 표적 심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부정적인 보도, 비판 보도 하는 언론 싸그리 짹싹 심의로 잡았는데 법원에서 다 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이긴 것 없습니다.

방송 2인 구조 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에서 야당 추천 봇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는데 7개월 7일 아무 답 없이 임명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사이 법제처가 나서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심사한다더니 지금까지 심사결과 안 나오고 있습니다.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어떤 탄압을 당했는지, 전용기에 MBC는 안 태우고 그리고 전용기에 태워진 사람 중에 남편이 검사인 기자 데려다가 대통령 얘기하고 이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이 나서고 국민이 나서고 윤석열 정권 퇴출된 것 무능한 방송장악, 무지막지한 방송장악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모르는 척하시면 안 되고요.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진행하기 전에 시간 좀 멈춰 줘요.

○**위원장 최민희** 예, 멈춰 주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답변을 하라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위원들에 하셨던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끼어들고 그러면 반드시 멈추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예, 끼어들면 즉시 시간 멈춰 주세요.

○김현 위원 바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마 한 20분이 걸릴 겁니다. 본인이 도대체 몇 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번 질의 시간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쉽다면 끼어들지 마십시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법안 개정을 이진숙 본인의 축출법이다, 굉장히 소모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하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언론장악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 보도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국무회의 밖에서 있었던 얘기가 있어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얘기를 제가 일단 먼저 얘기하면 문화일보 6월 24일 자 그다음에 연합뉴스 6월 24일 자를 보면 단독보도 해서 방송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 임기 보장 요청에는 즉답을 피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봤습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인데 한국일보 단독보도에는 ‘국무회의마다 불만 토로한 이진숙……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현 위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지요?

질문입니다. 얘기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독임제 관련해서는 워낙 외부에서 다른 언론들도 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다른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것과 관련해서는 임기를 맞춰 달라고……

○김현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멈춰 주십시오.

제 질문은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고요. 다른 언론의 술한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겁니다. 한국일보 단독보도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자의 평가니까요.

○김현 위원 아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김현 위원**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자의 해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자의 해석이 아니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3법에 대해서 아까 반대한다 그러셨나요,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13개가 나와 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현 위원** 아니요, 개인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으로 나온 겁니다. 사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김현 위원** 질문의 내용 다시 들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멈춰 주십시오.

질문 내용을 듣고 답변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사사롭게 하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사롭게 한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경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라고 했지요? 혼자 중얼거리신 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사롭게 답변하지 말라 그래서 사사롭게 답변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뭐 별…… 사족인데.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관 직무대행인가요? 나와 보세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보고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방송3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 보고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국회에서……

○**김현 위원** 보고하셨지요? 답변 또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냈는데 방송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22대에 들어서 방송3법을 제출한 게 더불어민주당 말고 또 있습니까, 조국혁신당 말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의 방송3법은 없습니다, 제출된 법이.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방송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방통위원회 입장인

거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하여튼 저희 사무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사무처 입장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방통위원장께 보고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하고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3법,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낸 방송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방송3법에 대해서, 아가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한다는 취지에 대한 것에 긍정을 했으면 이것은 모순관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법이 없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을 가지고 지금 방통위가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지요. 독립되어 있고 협의제 기구인데 대통령 소속 기구잖아요.

어느 대통령 소속 기구인가요, 지금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현 정부의……

○김현 위원 현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정부명이 뭐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국민주권정부.

○김현 위원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정책, 방송 철학을 뒷받침하는 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어요. 그 것은 개인 소신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입니까, 사무처에서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대통령 소속기관장으로서 답변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위원회 기관장으로서 답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팩트체크넷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7억 4000만 원의 부가금을 부과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팩트체크넷에 대해서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제재부가금을 한 것입니다.

○**김현 위원** 그 제재부가금을 계속 그러면, 7억 4000만 원을 받을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현재까지……

○**김현 위원** 답변하세요. 7억 4000만 원을 받을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의신청 원한다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현 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당한 징수だ라고 얘기하면 철회해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7억 4000을 부과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내려지면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철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TBS가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TBS가 방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대로라는 의미는……

○**김현 위원** 정규방송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말고요.

추가질의할 텐데,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 하면…… 그것 하지 말라고 제가 위원장에게 아까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했잖아요. 못된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끼어들지 말고 질문 차분히 듣고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으니까요.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맞잖아요.

TBS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침,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송을 특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침 7시에 뉴스를 하거나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질문입니다.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상적이라든가 제대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제가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TBS가 어떻든 편성표를 그려서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말고요. 지금 음악만 내보내고 있어요. 생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이 아닌 거지요. 방송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일부가 남아서 있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방송국이 제대로 방송을 못 한다…… 제대로 방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들은, 방통위에서는……

○**김현 위원** TBS가 방송을, 월급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TBS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세워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 질문을 하셔서 답변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방송…… 제가 질문의 내용은…… 들었고요. 지금 방송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지난해 9월 달부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았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본적으로 TBS는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금을 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통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TBS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9월부터 봉급을 못 받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 복귀한 게 2025년 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2·3·4·5,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동일하게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TBS에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탄압이 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얘기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또 YT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세요.

저 한 가지 잠깐만……

방통위가 서울시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출연금을……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아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출연금을 중단시켰을 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가 서울시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르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고, 저 깜짝 놀랐네요. 방통위가 서울시를 통할한다는 표현이 가당키나 합니까?

○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과기정통부하고 우주청은 업무가 종료됐으니까 보내 드리고 지금 방통위만……

○위원장 최민희 저는 과기부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가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김현 위원 1차관도 가셔야 되지…… 1차관도 가는 것 아니에요, 과기부?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장관님이 안 가시는데 1차관 못 가십니다. 그냥 오늘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계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만 과기부 하실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예, 저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마치면 과기부도 보내 드리지요.

○위원장 최민희 하셔요.

○최형두 위원 나는 과기부장관한테는 안 하겠습니다. 방통위만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

○최형두 위원 아니아니, 과기부장관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가 방통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 보내 드리라고?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아까 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건 관련하여서는 6월 30일에 일단 기술적인 검증 결과는 발표하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때까지 완료되는 스케줄로 지금 다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위약금 문제와 기술적인 점검 결과는 그 기술적인 점검 결과에 따라 위약금 문제 판단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2개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6월 30일 날 일단 기술적인 검증 결과는 발표하실 건가요?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장님, 현재 6월 30일까지 조사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의 발표 시점과 형태에 대해서는 한번

장관님과 더 상의를 드려야 되고, 저희의 희망 사항은 지난번에 대선 때 중간에 여기 TF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TF에 현재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는 드리겠다는 취지가 있고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의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6월 30일 날 공개 발표하는 게 아니라 TF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 TF가 여야 간사님 방하고 또 원하는 의원님실의 보좌관은 다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TF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후 판단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시점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장관님 한 번 더 여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 부분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요, 그 문제를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언론에 발표하는 문제는 위약금 문제가 더 예민해서 그것을 그때 발표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보다는 위약금이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강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TF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자, 그게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민희 일단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보고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양당 간사님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김현 위원 TF에 보고하는 거요?

○위원장 최민희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 30일까지 기술적 3차 검증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6월 30일 날 위약금 문제까지 다 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착오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일단 6월 30일 날 공개적으로 기술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나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TF 그때 구성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의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TF 할 때 위원장실에서 이훈기 위원님을 꼭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이것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장관.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과기부장관님과 과기부차관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형두 위원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나가시고 하려고……

○최형두 위원 있을 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위원장 최민희 이석하시고.

○최형두 위원 예.

우리 상임위가 지금 과학기술, 우주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주제가 오가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국회에 붙들린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례를 앞으로 하나의 준칙으로 삼아서 좀 몰아서 하고 질문 답변과 관계없는 부처나 이분들은 분리해서 해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현 간사께서 그 점 하나는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맞지요?

○**김현 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최형두 위원** 오늘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직무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직무수당이 급여성이지요,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늘 나오는 것이니까 급여성 성격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 받고 이런 것이 아쉬운데……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를 좀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고 국정기획위원회, 새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역대 정부가 방송을 둘러싸고서 빚어 왔던 시행착오나 오해, 불신, 갈등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차별성을 이야기했는데 새 대통령이 이전에 임명된 정부위원 그리고 국무위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의결권이 없는데도 정부위원으로서 참여시켜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그런 악순환들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모두 바꿔야 되고 또 방송사 사장들까지도 줄줄이 압박을 받는 그런 사안들은 바뀌어야 우리가 방송문화도 좀 더 진일보하고 우리 민주주의도 좀 더 품격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한 생각들을 최근에 밝히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그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라면 아까 최민희 위원장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정리한다, 시쳇말로 잘라 낸다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법적으로라도 방지를 하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시기를, 만약에 시기가 맞다면 그런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위원** 미국에서는 이게 플럼북(Plum Book)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공직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과 운명을 같이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서 합의제의 그 정신을 더욱 살리고 더욱 진작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했던 그런 상황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취지

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그 정신은 독립위원회 또 합의제 정신을 살려서 여와 야 또 진영과 진영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일된 안을, 답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건강한 정신이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미국의 FCC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그분은 상임위원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트럼프 정부 때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지만 임기를 대통령하고 같이하는 것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 이 단초를 시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야 대통령 임기가 지나더라도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정부, 저 정부 다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부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생각하면 특히 지난 정부도 저는 늘 최민희 위원장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에서 당시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아니, 이게 이해 상충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해 상충의 문제를 명백히 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 주든지 아니면 뭐 단서를 붙여서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7개월째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과행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또 국회에서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지 않으니 그 당시 이진숙 위원장께서 아마 우리 당 추천 뜻으로 상임위원 내정이 됐던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과행을 부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좀 빨리빨리……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5인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지요, 새로운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그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데 그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최형두 위원 우리 김영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 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이거는 아직 논의를 안 했어요.

○최형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참 김현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니까 빨리 가닥을 잡아서, 다섯 명의 지금 체제로 간다면 빨리 다섯 명의 상임위원을 복원해서 그동안의 과행을…… 모든 문제가 2인 체제라는 것 때문에 과행이었고 지금은 1인 체제가 되었는데 이걸 빨리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원과 함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간부 직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받지 못하고 여러 경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새로운 복원 체제와 함께 복원되도록 그렇게 야당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진숙 위원장, 지금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라는 뜻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맞춰져야 한다는 게 소신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행법이,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퇴라는 것하고 법에 의한 임기라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어차피 법은 새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법이 만들어질 텐데 본인의 소신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같이하는 거라면 대승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본인이 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이 되므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건 입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위원장 최민희 뭐가요? 왜요? 왜 입법부가 이 말을 못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에 의한 제 임기를 마치고 입법부에서 새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하고 임기를 마치면 가장 대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아니,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경우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했습니다. 임기가 1년 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만료돼서 다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법이 생겨도 본인 임기는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지금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요. 새 법이 생기면……

○김현 위원 그게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과기부와 여러 정부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위원회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법에 따라서 과거 위원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진숙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왜 축출법이라고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왜 제가 낸 법안 2개를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그 법안에 따르면 ‘이전의 위원장은 임기를 다 한 걸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거는 통상의 일이라고요. 저도 1년 반의 임기를 남겨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겨서 방송위원의 임기를 1년 반 안 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예외다 이런 얘기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제 임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지금 무슨 본인의 임기를 얘기합니까? 법에 과거 위원회가 해산되게 되고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데 예외 조항을 둬 달라는 얘기예요, 본인만?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아직까지 그 새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가정적인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김영관 처장대행, 아까 방송법 관련하여 그리고……

나와 보세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 앞에서.

아까 방송3법 관련하여 그리고 방통위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의된 법안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하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방송3법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거기에 딴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도 들어 있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국정철학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방통위 관련 법안을 위원장께 보고한 적 없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위원장께 보고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국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 다 들어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그 내용 동의한다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현재 제 임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미래의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게 뭐가 가정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말장난하려 나온 거 아니고요. 방통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보고하셨지요? 김영관 처장, 보고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보고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내용에 보면 기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딴소리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제 임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거기 들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보고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 안 했다,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 안 한 거네요.

김영관 처장, 혹시 그 부분만 동의 안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게 보고했을 때 ‘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세부적으로 일일이 보고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무슨 그 내용이 되게 세부적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왜 혁신되어야 하는지 두 분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오늘 저희가 방통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가져간 게 방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독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다음 상임위원회 출석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게 있고요.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라면 유관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바코 또는 KBS·EBS 공영방송, 준공공기관과도 임기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자르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제기했고 대통령께서 불만이 있으면 본인의 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 독임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그런 바 있습니까?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임기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적 있습니다.

○김현 위원 임기를 맞추는 문제.

그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독임제’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는 걸로……

○김현 위원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없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억합니다.

○김현 위원 없는 걸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나중에 기억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면 기억을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독임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지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임제라는 얘기가 그냥 나올 리는 없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면 이것 정정보도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숙의 임기 보장해 주고 독임제가 낫다는 주장,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거고요. 독임제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임제가 낫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현 위원 지시한 적도 없습니까, 방통위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임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라고 한 적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현 위원 다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있다에 독임제를 지시한 바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건 제 기억의 문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김현 위원 김영관……

그 지시 사항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이 최근에 방통위 사무처에 지시한 내용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임기 보장만 있다는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한 바가 없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는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 보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일보 단독보도 6월 25일 자에 ‘국무회의마다 불만 토로한 이진숙……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하시지요. 그 래야지 이진숙 위원장이 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정정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장악을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대통령이 방송장악·언론장악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들이 그만뒀다고 얘기하는데 딱 한 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쫓겨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경우도 없고…… 자진 사퇴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쫓겨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즉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만두거나 해임되거나 탄핵으로 쫓겨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쫓겨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거나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재명 정부의 방송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시청각 미디어를 모아서 통합해 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져와서 방통위를 더 키우겠다는 게 지금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축출법도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한 오해하지 말고 진짜지 마십시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면 일몰이 돼서 다시 만들어진 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의 임기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는 데 혼선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디 나가 가지고 자꾸 최민희 위원장하고 본인의 대립각을 세워서 뭔가 화제를 만들어서 기사를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어디 나가서 화제를 만든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KBS 감사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금 일심과 이심과 삼심이 있는데 일심에서는 대부분 다 패소했고요. 본인이 소송했던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아래서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해서 그 소송 하지 말라고 하면 따르겠지요? 왜냐하면 이 부당한 법정제재가 육십몇 건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아래서. 그리고 서른몇 건이 패소를 했고. 이진숙 체제에서, 이진숙 2인 구조에서 지금 14건이 소송 진행 중이고 그중에 많은 건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KBS 감사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심을 갈 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아마 삼심까지는 못 가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심 갈 때는 새로운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궐위인데 사실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장관이 곧 임명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중단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부당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했던 이 일이 다 불법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용산의 부속실로 해서 활동했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침이 많은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그걸 수긍하고 그런 실행들을 하겠다는 선언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이진숙 위원장의 소신, 소위 극우의 여전사라고 박수받았던 이진숙의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철학과 노선과 가치가 다른데 그러면 그 본인의 소신을 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을 따르는 대통령 소속기관 기관장으로서 활동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까? 질문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적 검토를 해 보고 항고,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재항고는 넘어갔고요. 제가 얘기하는 TBS 문제, YTN의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해야 될 숱한 과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상인 그다음에 김태규 1인 구조,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 김홍일·이상인 2인 구조 그다음에 이동관·이상인 2인 구조에서 벌어졌던 숱한 방송장악을 했던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이 곧 시행이 됩니다. 사무처 보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경찰 수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질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국정철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다른데 윤석열 정권에 했던 그 일이 부정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극우의 여전사를 포기하시고 민주 진영의 개혁의 여전사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저 스스로를 극우의 여전사, '극우'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는.....

○**김현 위원** 극우의 여전사라고 얘기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견배를 하면서 본인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저는 '극우'나 '극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 다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극우와 보수의 차이가 뭘지는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극우나 극좌는 폭력을 동반하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대개 극우적 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극좌적 난동입니까? 그러니까 극우가 없지 않지요.

그다음에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 역대 방통위원장이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한번 쭉 얘기해 보실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시중, 최성준, 이경재 그리고는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 대통령 때 말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명박(MB) 때 최시중, 이계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경재, 최성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효성, 한상혁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최시중,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까? 임기 다했어요. 이계철,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어요. 이경재,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최성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몇 달 임기 지체돼서 임기 다하고 나가셨습니다. 이효성 위원장,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아니, 그냥 말해 보세요. 누가 쫓겨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장 최민희**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회에 의해서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이 나가셨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건 정권이 바뀌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잘 압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건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이 쫓겨나는 사태를 막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반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영뚱한 말 하지 마시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건 인정하세요.

최시중·이계철·이경재·최성준·이효성·한상혁, 역대 방통위원장 명단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말 잘못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만약에……

○위원장 최민희 말 잘못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안 한다면서요. 왜 본인은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데 쓰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민희 위원장께서……

○위원장 최민희 최시중·이계철·이경재·최성준·이효성·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이 중에 정권에 의해서 강제 퇴출된 사람은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민희 위원장께서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이진숙은 쫓겨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물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족이고요. 그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맨날 답변할 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왜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러면 그게 가정적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핵심은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경재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 위원장 안 쫓겨나셨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만 윤석열의 방송장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PC 담당자 누구입니까? 나오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전산장비 241대 폐기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

○위원장 최민희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월요일 날 과장 전결로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6월 23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폐쇄 작업이 시작됐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세워 주세요.

띄우세요. 왜 안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폐쇄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것 띄우세요.

이게 하드 그다음에 노트북, PC 쌓아 놓은 것,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23일 날 폐기계획 수립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저렇게 폐기하는데 3년마다 폐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장 최민희 3년마다 폐기한다고 답변, 쌓아 놨다가 폐기하면서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맞습니다. 일정 규모……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뭘 그렇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내용연수가 한 5년 정도 지난 것을 저희가 폐기를,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삼 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까지.

업체 선정하셨지요?

그냥 답하세요. 업체 선정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누가 선정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행정데이터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계약서 썼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쓰지 않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구두로 섭외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계약서 없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되는 PC, 전산장비 소유는 누구 겁니까, 소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방통위……

○위원장 최민희 국가재산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계약서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업체는 돈 받습니까? 업체에 대금 줍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제가 듣기로는 무료……

○위원장 최민희 무료로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그 업체는 수호천사입니까? 무료로 합니까?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뚫어 두는 조건으로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쪽은?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위원장님, 죄송……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저분. 어디 먼저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위원장부터 직원까지 왜 이렇게 제멋대로입니까?

그러면 대금을 안 받아요. 공짜로 해 줍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

○위원장 최민희 이것 세우세요, 답 안 하는 시간은.

공짜로 해 줍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무료로 검토를 담당팀에서 했던 걸로……

○위원장 최민희 무료로 검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무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업체는 왜 무료로 해 줍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고 이 자리에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까지 왔는데 파악 안 하고 나와요, 이 자리에? 그래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컴퓨터업체에 돈은 안 주고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모니터까지 통째로 주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게 대금이다. 이것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무슨 확인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깨부습니까? 이상해셔요. 깨부습니까?

이상하지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요?

○김현 위원 기록물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기록물은?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하세요, 저 보시고.

이거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을 폐기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 노동의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이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 국가에 귀속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기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기부에 알아봤어요. 과기부는 이렇게 안 한대요.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파면되고 대통령실 안 비워 주다가 파기 못 해서 남겨

진 개 수영장인지 뭔지, 정자와 개 수영장 같은 그것만 빼고 PC 초기화하고 다 삭제하고 이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들으셨지요? 계약서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 최민희** 짧게 좀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방통위의 실상입니다. 계약서 없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업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고요.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대금도 안 주고 그리고 최소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노트북 등등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책임져야지요, 누군가는.

이거 몇 년 치 한 거예요? 3년 치 한 거겠지요, 뭐. 3년마다 한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관례대로 3~5년 치 모아 놓은 것을 했는데,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꾸짖었습니다만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한 것 이거 말 안 되지요,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보통 잘못이 아니지요. 국가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나라가 버스기사가 800원, 그 커피 빼 먹었다고 그거 횡령이라며 아웃시키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거는 800원 넘겠지요.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휘 감독합니까, 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현 위원** 잠깐만, 김영관……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혹시 모르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오늘……

○**김현 위원** 아니, 모르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전에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사전에 보고가 안 됐는데, 과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모를 수는 없지요. 과장 전결이라고 그래서 과장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안에 따라서 과장 전결인 경우도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과장 전결입니까? 이것 곧 다 밝혀질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사무장비를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일을 벌여요? 280명의 많은 방통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한 거지요. 폐기하는 시기로는 적절한 거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폐기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거지요. 그리고 이 중요한……

그러면 보안 담당이 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 전산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가 입회하도록 돼 있어서 운영지원과 직원도 입회했다고 합니다.

○**김현 위원** 운영지원과장도 입회했습니까? 운영지원과장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운영지원과장은 기조관의 직속이에요. 성종원 국장 직속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운영지원과는 별도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 직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위원장 직속인데 위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처분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분명히 그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계약이 아니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의 직속 부서인데 그 일이 그러면 어느 단위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부속실의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는 보고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담당 부서가 행정데이터팀이고 행정데이터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김현 위원** 자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 일이 이번만 자체적으로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 교체 시기에, 정부 교체 시기에 어떤 사용연한이 넘겨져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담당자 쪽에서 특별한 생각 없이……

○**김현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방통위가 어제오늘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많으니까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인수위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준인수위원회가 가동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자료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업체도 공짜로 한 업체가 와 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것에 담당 과만 알았지 위원장 부속실도 몰랐다, 기조국장도 몰랐다, 사무처장직무대행도 몰랐다. 다 몰랐다, 운영지원과장만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운영지원과에 입회를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발된 공문서들을 다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다 해야 되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자료 요청하시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도면 3년이면 2011년도일 거고요, 5년이면 2013년도일 겁니다.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정부 교체, 정부가 바뀔 시기에 아마 이런 조치들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딱 시기는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어쨌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저는 질의했으니까 위원장님의 자료 요청……

○**위원장 최민희** 아까 직원이 하드 뜯는 그 현장에 입회했다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얘기를……

○**위원장 최민희** 누가 입회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담당 팀장이나와 있는데 혹시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저는 직원…… 본인이 입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얘기 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최현숙**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없었잖아요. 없었고, 처음에. 저희가 불렀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뭐를요? 여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위원장실이 갔을 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답하세요, 앉아서 그냥.

저희가 갔을 때 있었어요, 현장에?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물건이 나가는데 못 나간다고 그때 전화받고 잠깐 1층 갔다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없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지금 변명하는 것이고요, 왜 현장을 비웠는지.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얘기예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이철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가재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것 충격적 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늘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계약서 없이?

김영관 처장대행, 그렇게 했습니까? 늘 이렇게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모든 민간과의 업무 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번에만 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하시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번에 안 썼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과거에는 계약서를 썼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거는 저희가……

○**김현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검증 나갈게요.

○**위원장 최민희** 예, 현장검증 하셔서……

○**김현 위원** 지금 이거 보존돼 있는 거지요?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중단됐어요. 저희가 경찰과 같이 갔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이제 질의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김현 위원** 예.

○**최형두 위원** 예, 끝냅시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형두 위원** 끝내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결정한 사업들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위원회 뜻이 반영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방송장악은 없습니다. 저희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것이며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과기부에 있는 유료방송 규제를 방송 주무기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나 MBC, EBS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정훈 위원이 아까 적나라하게 증언하셨듯이 정권만 바뀌면 방송3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다가 대통령만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방송3법 통과시키지 않고 방송장 악하려고 보수정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랄하게 그리고 진보정권은 사장 교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는, 박정훈 위원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 이 안을 대통령실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큰일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석하셨더라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주신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정책기획관 전영수

정보통신정책관직무대리 윤두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준리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